

전략 COMMENT

고금리 환경 장기화 속 AI 의존도 심화

주식전략. 강대승 / ds_kang92@sks.co.kr / 3773-9122

Signal: 국채 수요 부진 속 연휴 기간 미국 금리 급등

Key: AI 조달은 막히지 않았지만 비싸짐. 버는 쪽과 빌리는 쪽의 차별

Step: 현금 창출 위치의 AI CAPEX 관련 기업의 상대적 매력 여전

연휴기간 동안 주요 이슈 3 가지

1.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연휴 기간 동안 미국 국채 금리 급등. 5 년물 입찰은 부진한 수요 속 5.033%에 낙찰됨. 직전 입찰 (4.393%) 대비 64.0bp 급등한 수준으로, 2006 년 6 월 이후 최고 낙찰금리. 10 년물 금리는 9/23 5.11%로 마감하며 2007 년 7 월 이후 최고치 기록. 9 월 FOMC 인상(3.75~4.00%) 이후 금리선물 시장은 연말까지 1~2 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반영 중
2.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vs 자본재 신규 주문, S&P PMI 지수 상승: 9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48.1 로 4 개월 만에 최저이며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6%로 전월(4.0%) 대비 상승. 반면 기업 지표는 확장세 지속. 9 월 S&P 글로벌 종합 PMI 예비치는 58.4 로 2021 년 7 월 이후 최고치 경신. 다만 비용 압박 및 가격 전가도 증가 중이라고 응답. 8 월 핵심 자본재 신규주문은 AI 투자와 연관이 높은 품목에 의해 증가
3.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불가항력 선언과 소프트뱅크의 채권 발행: 오라클은 뉴멕시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주피터' 개발사에 불가항력 통지를 발송함. 2028 년 가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 의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가장 큰 이유는 전력원 확보 지연. 2.45GW 규모로 설계된 이 캠퍼스에 가스를 공급할 파이프라인은 주 당국의 잇따른 인허가 반력으로 완공 시점이 6 개월가량 밀린 2027 년 2 월 1 일로 늦춰졌고,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대기질 허가도 아직 나지 않음. 다만 오라클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며, 주 임차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후속 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11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 표면금리는 7.125~9.75%에 책정됨

고금리 환경 속 AI로의 쏠림 현상 장기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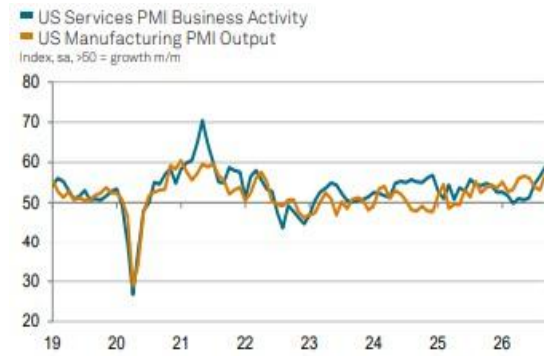
해당 이벤트가 의미하는 것은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이션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저조한 미국 국채 수요 확인. 가계 심리는 위축됐지만 AI 투자 주도로 헤드라인 지표 자체는 견조. 중간선거를 앞두고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잡음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 집행은 이어지는 중. 고금리 환경, 즉 현금의 가치가 높아진 지금 AI 안에서도 외부 조달에 의존하는 기업과 스스로 현금을 버는 기업 간 차별화가 커질 것. 연휴 기간 오라클이 5.2% 하락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론은 오히려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보험권에 머물렀음. AI CAPEX 관련 기업들은 지금 사이클에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위치로 이들 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 급등



자료: Bloomberg, SK 증권

S&P 미국 PMI 지수, 높은 수준을 기록



자료: S&P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